



屋蓋石一枚가 놓여 있을뿐 그 외는 아무런 遺存物이 없다.

二、規模 및 樣式

立像의 크기는 總高가 一·七m 肩幅이 五三cm 脚幅이 五五cm 寶冠을 합한 頭高는 四六cm이다. 寶冠에는 前後側面에 化佛四個가 浮刻되어 있으며 手印은 左手를 가슴에 얹었고 右手를 밑으로 내려 念珠를 드리우고 있는 觀音의 變形狀을 나타내고 있다. 法衣의 影線은 纖弱하고 全體의 形式化된 感覺을 주며 彫法은 精巧치 못하다. 砂岩質이라는 것과 또 洞里 어린애들의 자난으로 眉目·口唇·鼻梁 등은 거의 消滅되어 正 確한 顔相은 알아 볼 수 없게 되었다.

重厚한 頭相과 寶冠, 便化된 衣襲, 그리고 手印의 表現樣式 등을 보 진대 高麗時代의 彌勒佛과 흡사하며 아마 麗朝後半期에 製作되었으리라 고 생각된다.

塔蓋石 또한 同代의 것으로 볼때 元來한 寺院에 있었던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을 것이나 단 元位置가 어딘가는 알 수가 없다.

〔參考〕東國輿地勝覽 二五卷 義城條「穴洞在舍谷里, 距縣東二十五里, 岩穴深邃, 疑有陰獸, 秘藏可愕, 巖早有禱輒應」

이며 들어갈수록 四方이 넓어졌다가 다시 좁아지는 形狀을 이루고 있다. 石佛은 窟內에서 가장 넓은 곳에安置되어 있으며 入口에서 五m 地點에 東向해 있다. 足前에는 拜石으로 使用되었으리라 생각되는 石塔의

南大門 解體後 發見된 墨書

崔 容 完

南大門의 舊部材中 結構連接된 面을 分離解體했을 때 發見된 여러가지 墨書를 整理, 이에 紹介하고자 한다.

① 추녀의 사례에 걸치는 면에서

○ 上層의 南東隅에 位置한 추녀에 「上一南」상칭춘어」「춘어편수한수□」라 있고

○ 上層의 南西隅에 位置한 추녀에는 「上四」李道□」라 있다.

「上一南」上四」는 같은 筆致이며 首編首가 部材의 位置를 表示하는 記號이다.

番號順序는 平面的으로 時計바늘 回轉의 反對方向의 配列임을 推測할 수 있으며 昌枋의 順序도 같은 方法이다.

② 昌枋의 平枋과 걸치는 면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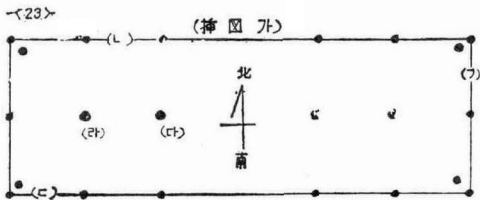
○ 宗에 位置한 뜰창방의 종도리와 接하는 면에 「李忠臣豫」라 있고

○ 그림(挿圖가)에서 (1)의 位置에 있는 下層昌枋北端에 「北隅一」(1)

의 位置에 있는 下層昌枋 兩端에 各各 「北行四」라 記錄되었으으며 (1)의 位置에 있는 上層昌은 一端 「上北行四」他端에 「上層北行四」라 있는

데 이들은 모두 같은 筆致이다.

○ 같은 部材에 이와는 다른 筆致로 그 部材의 中央部分에 다음과 같이 記錄되어 있다.



(一)의 下層昌枋에 「南□柱入」(二)의 下層昌枋에 「東中間之六
二」(三)의 下層昌枋에 「北隅西□行之六」이라 있다.
③ 調査에 依하여, 보아지,는 後에 修理할 때 添加된 것이지 原來의 것
이 아님이 밝혀졌는데 이 中心高柱內에 插入되는 部分에 「보화리」
라 落書되어 있는 것이 있다. 지금의, 보아지,라는 이름의 先形으
로 推測된다.

④ 大貢에서 發見된 落書

四本の 心高柱위에 자리한 大貢 四本中 맨 西側(라)와 그 이웃(내)에
다음과 같이 落書되어 있다.(挿圖나)

「古」덩서방」서월리」시성」 그리고 목수들의 이름들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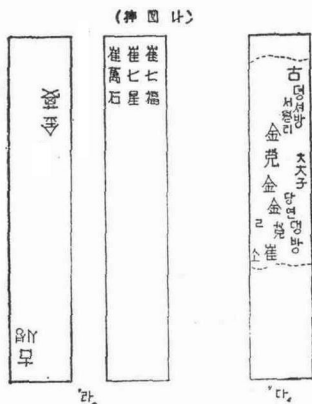
⑤ 上檁文이 쓰여진 部材에 關하여 上檁文內容에 關하여서는 이미 紹
介된 바 있었다. 上檁文이 쓰여진 部材의 狀態는 다음과 같았다.

⑦ 洪武二十九年(一三九六)의 上檁文이 御間北便의 중도리밀 장허
의 도리와 겹치는 面에 墨記되었으며 部材는 文頭가 東으로 文尾
가 西에 向하도록 놓여 있다.

⑧ 洪武二十九年的 同一內容의 上檁文이 중도리밀 뜰창방의 上面
에 墨記되어 文頭를 西
에 두고 있었다.

⑨ 正統 十三年(一四四
八)의 上檁文이 中도
리下面에 墨記되어 部
材는 글의 方向이 東
에서 西로 놓이도록 되
어 있었으며 兩端 部
分에 구름을 그렸다.

⑩ 成化 十五年(一四七
九)의 上檁文이 톱으
로 잘리워 一部 欠失
된채 다른 한 끝은 왕



지 머리로 만들어져 西側隙間의 北側 왕지 도리에 남겨 있었다.
같은 方法은 部材의 中央部分에서 文頭를 서로 맞대었다.

같은 面에서 發見되었는데 文頭는 東側에 두었다.
⑥ 懸板을 解體하고 修理할 때 後面이나 隱蔽된 部分에 墨銘이나 痕
跡을 찾으려고 細心한 注意를 했으나 發見치 못하였다.

위의 諸狀況에서 ①③④의 落書는 記錄上의 마지막 修理인 成化十五
年 成宗十年 以後의 것임이 쉽게 推測되나 創建當時의 上檁文이 복사된
點(一)의 上檁文은 建物の 이 部分이 後에 構造變更된 곳이며 上檁文이
쓰여진 部材가 아니므로 ①을 복사한 것으로 밝혀져 있다)

또한 成宗十年의 上檁文이 쓰여진 部材가 아무렇게나 取扱된 點等으
로 上檁文記錄 以外에 修理가 있었음은 물론이겠으나 時期가 어느때 인
가 하는 것은 疑問으로 남아 있다. 史料를 調査하게 되면 밝혀 지리라
생각되나 참고로 「權域書畫徵」(七八面)의 柳辰同에 關한 說明을 이에
引用해 둔다.

「柳判書辰同. 以書於世. 其家傳藏判書所寫崇禮門三字屢百紙. 以爲南
門揭額時寫習者云. 亦未有證矣. 肅廟時大將柳赫然. 即其後也. 因修理
門樓. 脫下扁額. 則扁背書嘉靖某年. 竹堂書. 始知其爲柳公書也. 世稱
爲讓寧大君者蓋誤也」(畫永編)

資 料

◎ 金浦郡內支石墓

最近에 金浦郡 月串面의 田里에 居住하는 趙慶鎬氏에 의하여 金浦郡內
에 所在하는 三基의 支石墓가 發見되었다. 所在地는 同面高亭里의 俗稱
白石峴(한돌고개)이다. 支石墓의 蓋石은 一邊 一m 內外이며 거의 方形